



김성수 도의원, 고창소방서 위로 방문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고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고창소방서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화재 출동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고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20일 고창군 산림면 가평리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고창소방서는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길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강한 바람과 추운 날씨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9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1박 2일 서울 일원 가족여행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22일과 23일 1박 2일 서울 일원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2명이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상 가족여행을 쉽게 할 수 없는 가정에게 즐거운 추억과 가족애(에)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여행에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롯데타워 전망대를 관람하고, 백제문화 탐방을 위해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소통행정 대상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대상을 취약 계층을 넘어 경기 참체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까지 전격 확대해 추진하며 호응받고 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관내 청년층이 운영중인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상공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한 후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청년 사업자는 “읍장님께서 직접 찾아와 매출도 걱정해 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안내해 주셔서 사업 신장을 서둘러야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농축협,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은 24일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합동으로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헌혈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헌혈대상군의 감소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혈액원을 돕고자 고창군 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로운 100년 향한 생명·평화의 행진’

전주 YMCA,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출범식 성황리 개최

전주 YMCA(이사장 김종기)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신흥고등학교 스미스 홀 대강당에서 ‘100년 총회 및 100주년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 2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경계를 넘는 생명·평화 전주 YMCA!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생명, 평화의 행진’이라는 주제 아래 YMCA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주 YMCA는 전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사회 단체이자 청소년 운동단체로서, 지난 100년간의 역사성과 운동 정신을 회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YMCA 운동의 정체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돌아보며 회원들과 지역구성원들이 YMCA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동력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 YMCA의 정의와 평화 운동의 자긍심을 회원들에게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YMCA 운동을 소개하며 사회적 기여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서 교육감, 이상운 국회의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송시웅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대표, 조영송 남문교회 목사, 김대선 일로목사 등 정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YMCA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25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후 귀국한 이옥희 목사가 “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 이후에는 신흥학교에서 객사까지 이어지는 ‘평



화의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현 시대의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뜻을 함께 나누었다.

김종기 전주 YMCA 이사장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민 평화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히며,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갈등 조정과 평화 훈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뜻을 전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화를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화센터 건립에는 약 6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부자들의 이름을 전주 YMCA 건물 입구에 영구히 남길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전주 YMCA는 청소년 피스메이커 운동,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방과 후 아동 돌봄, 평화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통일 운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500여 명의 회원이 평화 시민운동체로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주 YMCA는 전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로서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과 100년을 향한 도약이 기대된다. /오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부천 호남향우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부천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1,000여명의 향우인에게 전북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과 고향사랑기부팀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부천 지역 향우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출향민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소개하며, 참여 독려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부 방법 안내 및 기부 참여 독려 활동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답례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전북사랑 IT를 시·군까지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지난 21일 북부미산 신약초타운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회원 등 120명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결과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와 제2대 회장 추인의 건, 회원회비(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김진 현회장이 앞으로 3년간 연임을 하기로 했다.

김진 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고, 복지국가의 참다운 시민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고운 마음에 존경을 표하고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하기 위한 좋은이웃들사업,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캐어뱅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홀몸 거주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주민도움센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유대만 기자

고창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5300만원 전달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고창군 지역아동 양성을 위해 지난 21일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2층 문화센터에서 고창교육지원청 유승호 교육장과 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 조합원 자녀 장학금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창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 지원금액은 총 5300만원으로 총81명(대학생은 41명, 초등학교 졸업생 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전달하였으며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 초등학교 졸업생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였다.

고창농협 유덕근 조합장은 “경기침체와 기후변화로 인해 고정적인 학자금에 지급해야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오늘 선발된 조합원자녀 장학생 여러분들은 고창인 고창과 농협 농촌을 기약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



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한민국과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농협은 2007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 현재까지 총 1320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총 8억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항금 전주장학속관장,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문항금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속관장이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슬로건인 GBCH(GO Beyond, Create Harmony) 헬린지에 동참했다.

문항금 관장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이번 헬린지에 전주장학속 임직원과 인사생을 대표해 참여했다”며, “전북의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이번 올림픽 유치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평생교육정책진흥원 이현웅 원장의 지묵으로 헬린지에 동참한 문항금 관장은 전주장학속 인사생 대표인 남궁대연(전북대 3학년) 자율회장과 장학속 출신자 대표인 유진오 총 동기회 회장을 다음 주자로 기록해 대학생과 장학속 출신자 등 젊은층으로 전북의 올림픽 유치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남원 읍내치킨 2호점과 업무 협약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와 남원 읍내치킨 2호점(대표 황성훈)은 지난 19일, 금년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동동 관계자와 남원 읍내치킨 2호점 대표가 참석,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매월 10만원 상당의 차킨을 지역아동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읍내치킨 2호점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착한 가게에 참여 중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례관리자 1명 현장슈퍼마비저 지정·운영

남원시는 사례관리 실천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례관리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현장슈퍼마비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사례관리 연속성·전문성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 배치를 감안해 현장 슈퍼마비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해 사례관리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1일 1가구 소통행정 통해 맞춤형 복지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례)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 대를 대상으로 매일 가가호호 방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돕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김봉례 동장과 맞춤형 복지팀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 가구를 방문 건강상담과 가정환경 점검을 진행하고 복지 물품을 전달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금동은 고향사랑 기부제, 제95회 춘향제, 제2중앙경참학교 남원 유치,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바우처 사업 등 시정 역점 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